

이차전지 특화 ‘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 최종선정

전북테크노파크,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 위한 글로벌 거점 구축

(재)전북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가전략기술의 지역 확산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북은 ‘이차전지’ 분야를 전략기술로 제안해 선정됐다. 이번 허브사업은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KIST),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나노솔루션, 전북대학교 등 총 11개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북 지역기술혁신허브는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 구

축’을 비전으로 하며, 오는 2030년까지 총 201억원(국비 200억, 지방비 50억, 민간 41억)이 투입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및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사업비 20억원이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허브는 △LFP(리튬인산철)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실리콘 음극재의 고효율·고성능화 △기술사업화 연계 및 수출형 산업 모델 구축 등 3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프로그램이 통합된 R&BD 플랫폼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허브는 99% 순도의 리튬 회수

기술 및 20% 이상 함량의 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을 확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공백을 메우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기술 사업화 매출 △140명의 신규 고용 △137건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등)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계 지역화기율 역량강화를 위해 이차전지분야 특허 65건, 논문 72건, 공공 및 민간 기술이전 20건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기관과의 MOU 체결 및 수출 계약 10건 이상 성과도 목표로 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수요 맞춤형 R&D 환경 조성, 기술육성주체인 혁신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단장(PM)은 “이번 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을 통해 지역이 기술을 기획하고 자립형 연구개발생태계를 주도하는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술육성주체 간 긴밀한 협업과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중심의 기술혁신 허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서신신헌(이사장 한병훈)은 지난 7일 서신신헌 본점(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신헌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300만 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헌사회공헌재단에 300만원 기부

서신신헌, KBS1TV ‘일꾼의 탄생2’ 방영 계기로 전달식

서신신헌(이사장 한병훈)은 지난 7일 서신신헌 본점(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신헌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300만 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헌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서신신헌 한병훈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8명이 참여했다. 서신신헌은 2019년부터 신헌사회공헌재단의 나눔문화 확산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자 기부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 300만 원 전달로 서신신헌은 재단누적기부금 872만원을 달성하게 된다. 신헌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출범한 전국 신헌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이다. 24년 12월 말 기준 정기 기부자 5,618명이 누적기부금 662억 원을 조성했으며, 24년 사회공헌사업 규모는 54억 원에 달한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서신신헌이 KBS 시사교양 ‘일꾼의 탄생2’ 프로그램 출연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일꾼의 탄생2’는 지자체의 복지·인정·환경정책 등을 소개하여 상생의 가치를 알리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간 신헌이 펼쳐 온 사회공헌활동을 일꾼들(손현수, 안성훈, 김민경)이 신헌 임직원·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홍보한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직장체협

‘엄마랑 아빠랑 출근하기’ 성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 임직원 가족 초청 직장체협 프로그램인 ‘엄마랑 아빠랑 출근하기’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되었으며, 총 40여명의 임직원 및 자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행사는 △펜인팅 에코백 만들기 체험 △별문매직소 공연 △탄소가 뭐예요? 퀴즈 게임 △사무실 견학 등 어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더하여 자녀들에게 업무 공간을 공유하며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가족초청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어요!”, “아빠랑 같이 점심 먹으니 진짜 출근한 기분이에요.”라고 전제 부모의 직장을 직접 방문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체험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킨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오상근 기자

SW미래채움 전북센터, 미래 디지털 리더 양성

코딩·IoT·아이디어톤으로 청소년 실무역량 강화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에서 운영 중인 SW미래채움 전북센터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군산대학교에서 도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인 ‘디지털리더스클럽 부트캠프’를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학생 중 SW미래채움 장기교육 이수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제 개발환경을 체험하며 실습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학생들은 실무에 가까운 코딩 및 IoT 경험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트캠프는 △새민금 메타버스 체험관 견학 △파이썬 기초 및 게임 개발 실습 △사물인터넷 코딩 △아이디어톤 대회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부트캠프를 통해 우수 학생 2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심화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산업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디지털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대규 센터장은 “도내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디지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 2025년 제1차 임시총회 성료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전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앞서, 새로 구성된 대의원들과의 상견례와 함께 대의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김상배 前 농협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대의원이 알아야 할 농협법 상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대의원들의 법률 이해도와 조합 운영에 대한 전문성

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대표 대의원이 참석하여 각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안전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임인규 조합장은 “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경영을 통해 지역 농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의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조합원 삶의 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우량암소 OPU 수정란 생산·공급

남원축협 한우암소개량센터 공란우 대상 OPU 기술 시연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지난 8일 본격적인 한우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에 앞서 남원축협 한우암소개량센터에서 OPU 기술을 활용한 난자 채취 시연회를 개최했다. OPU(Ovum Pick-Up) 기술은 기존 체내수정란 생산을 보완하는 생체 난자 흡입 기술로, 암소의 난자를 채취 후 씨수소의 정액과 체외수정을 통해 다량의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동안 씨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량방향에서 벗어나 우수한 암소의 유전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농협은 2023년부터 추진해온 한우뿌리농가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수정란 생산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한우뿌리농가육성사업에 참여한 암소 개체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약 5%에 해당하는 3,757두의 초우량 암소를 선발한 농협은 이 중 일부 개체를 전국 15개소 지



역축협 한우 암소 개량센터와 연계하여 공란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OPU를 활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은 농협 축산연구원(원장 윤영복)이 전담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남원축협을 시작으로 지역축협 한우 암소개량센터에서 확보한 공란우의 난자 채취를 통한 수정란 위탁 생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는 “OPU 기술을 활용한 수정란 생산과 보급은 우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역량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